

8월 「연근해 선박 기상정보」

발표일 : 2014년 7월 31일



8월 상순에는 파고가 대체로 약간 높겠으며, 중순과 하순에는 남해상과 제주도 해상에서 파고가 약간 높게 나타나겠음.

해양기상

- 상순에는 태풍의 간접적인 영향으로 서해남부해상, 동해남부해상, 남해상과 제주도 해상에서 파고가 약간 높겠으며, 중순과 하순에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거나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 때가 많아, 대체적으로 낮은 가운데 동해중부, 남해상 및 제주도 해상은 약간 높겠음.

(※ 물결이 낮음(1.0m 미만), 약간 높음(1.0~2.0m 미만), 높음(2.0~3.0m 미만), 매우 높음(3.0m 이상))

나타나며, 남해의 완도에서 8월 11일에 424 cm, 동해의 포항은 8월 11일에 51 cm의 고극조위가 나타나겠음.

해양안전

- 태풍내습 등 계절적 요인에 따라 기상악화 대비 정박선박 등의 안전관리 강화 필요
- 태풍 내습시, 인적 및 물적 피해 예방을 위해 무리한 조업을 자제하고 사전에 안전한 항구로 피항 및 소형어선은 육지 양륙
- 휴가철을 맞아 여객선, 낚시어선 등 선박 이용객의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선박 선체 및 기관 안전점검 필요

어업기상

- 8월의 수온은 동해·서해가 1~2℃ 정도 높은 수온분포를 보이고, 남해는 평년과 비슷한 수온분포를 보이겠음.
 - 예상 수온 : 동해 18~27℃, 남해 : 22~26℃, 서해 : 23~28℃
- 일사량 증가와 수온 상승으로 코클로디니움 적조의 밀도 증가와 국지적 적조 발생이 예상됨.

자료협조 : 해양경찰청, 국립수산과학원, 국립해양조사원, 중앙해양안전심판원



해양

해양

8월의 해상 예보



▶ 최근 5년간('09~'13년) 파고 관측값 통계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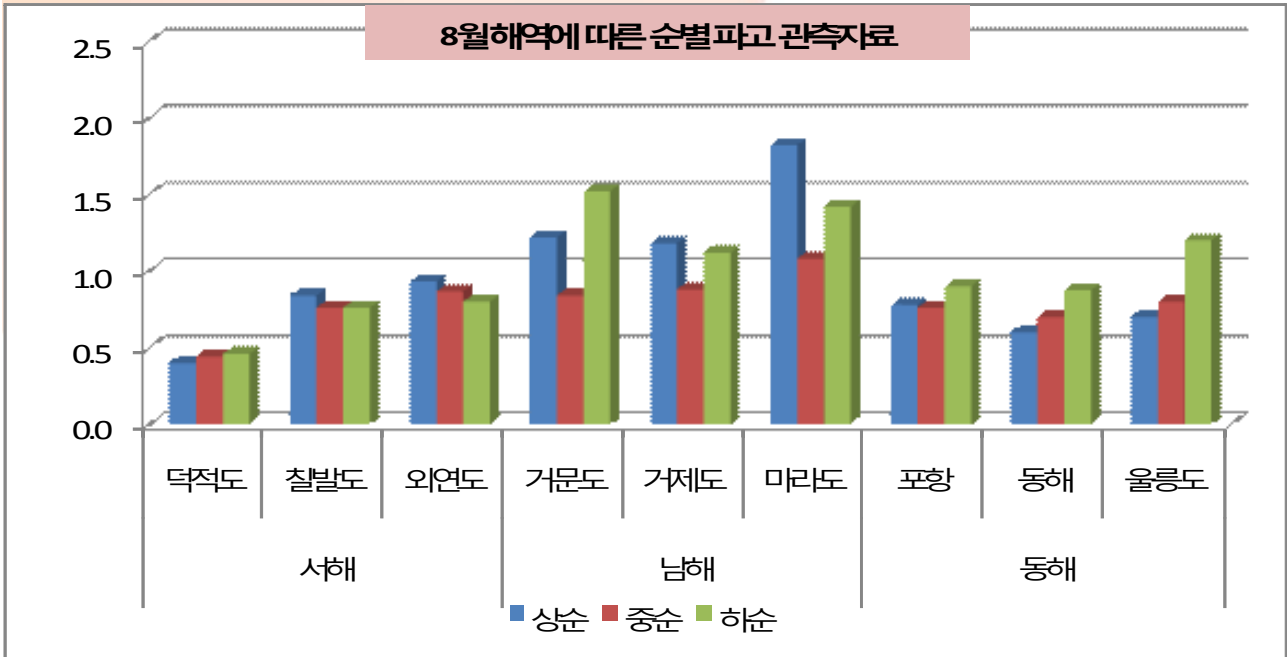


그림 1. 최근 5년간(2009~2013년) 순별 파고 관측값

최근 5년간(2009년~2013년) 해역에 따른 8월 순별 해양기상부이의 파고관측 자료를 살펴보면, 남해, 동해, 서해 순으로 파고가 높았음. 서해는 상순, 중순, 하순에 모두 대체로 낮았으며, 남해는 중순에는 낮았으나 상순과 하순에 파고가 약간 높았고, 동해는 상순에서 하순으로 갈수록 높아졌음. 8월에 파고가 가장 높았던 곳은 마라도이며, 상순에 1.8m로 가장 높았음.(그림1)

※ 울릉도 부이 자료는 2012년도 신설로 인하여 해당년도부터 추가함.

▶ 최근 5년간 및 작년 풍랑특보일수

최근 5년간(2009년~2013년) 8월의 풍랑특보 발표 일수를 보면 상순과 하순에 많고, 중순이 적었음. 해역별로는 제주도남쪽먼바다 및 제주도앞바다, 남해서부먼바다에서 빈도가 높은 편임.

2013년 8월의 풍랑특보일수는 최근 5년(2009년~2013년)에 비해 상순과 중순에 큰 폭으로 감소하였고, 하순에는 비슷하였음(그림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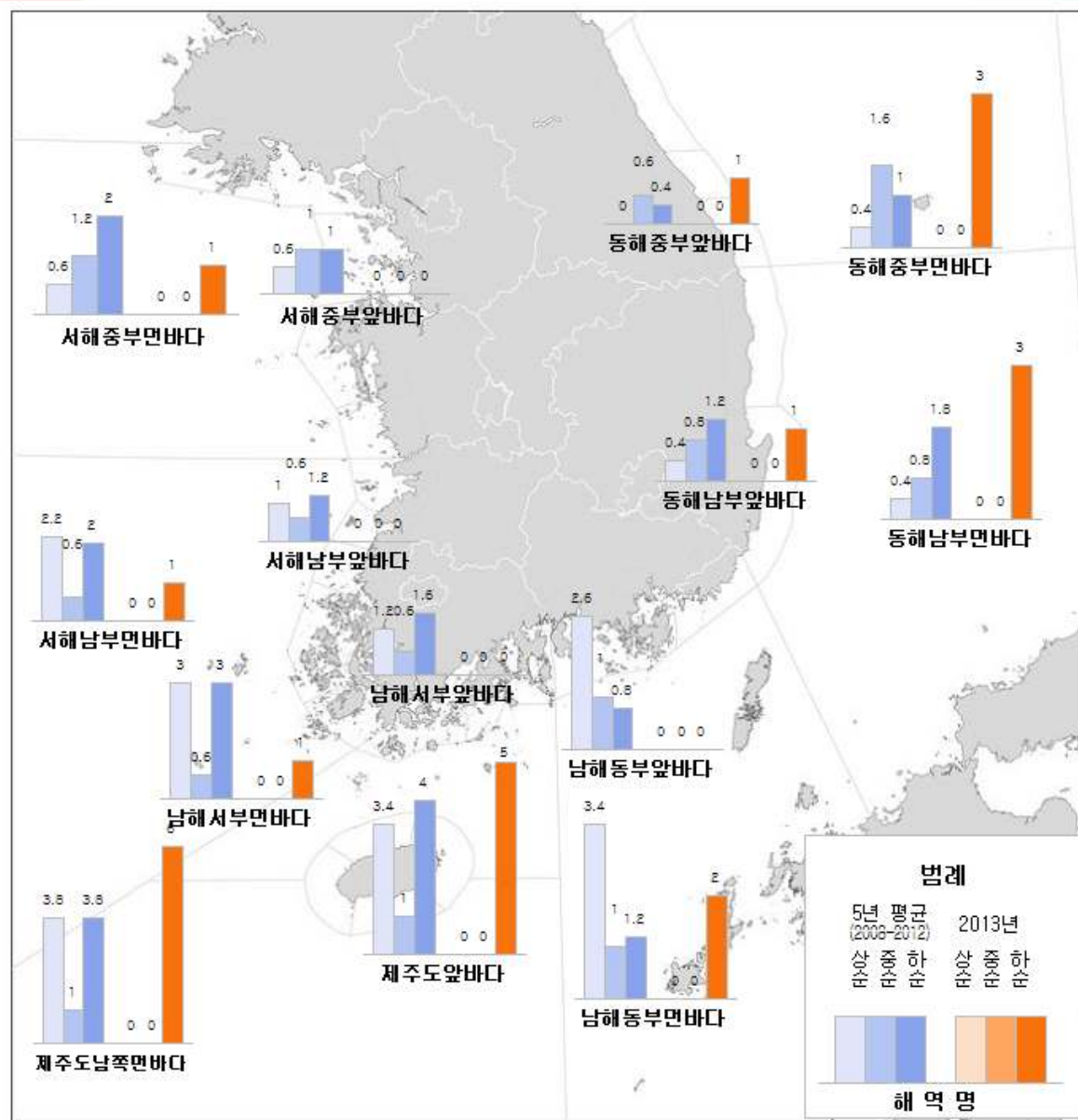


그림 2. 최근 5년(2009 ~ 2013년) 및 2013년 8월의 풍랑특보일수(상순, 중순, 하순)

▶ 이안류 발생 가능성 예측정보 제공 확대

매년 여름철 해수욕장에서는 이안류가 발생하여 피서객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음.

이안류는 해수가 해안에서 바다 쪽으로 급속히 빠져나가는 현상으로 주변보다 수심이 깊은 곳에서 발생함. 때때로 올림픽 수영 선수보다도 더 빠른 속도(초속 2~3m/s)로 피서객을 휩쓸어가기 때문에 여름철 안전사고의 주요 요인임.

기상청은 이안류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고, 국민들의 안전한 물놀이를 위해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발생하는 이안류에 대한 사전 예측정보를 국립해양조사원 등 유관기관에 제공해 왔음. 또한, 2014년에는 서비스 대상 해역을 중문과 낙산까지 확대하였음

이안류(Rip Current)는 해안 가까이에서 파도가 부서지면서 한 곳으로 밀려든 해수가 좁은 폭을 통하여 다시 바다로 빠르게 빠져나가는 흐름

< 해운대 이안류 2012년 8월 >



이안류 발생 가능성 예측정보는 당일부터 3일 후까지 3시간 간격으로 발생 가능성을 4단계(안전, 주의, 경계, 위험)로 매일 기상청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

이안류 발생 가능성 예측정보는 피서객들의 조난사고를 예방하고, 지자체, 해양경찰, 소방본부 등의 수상안전관리에 도움을 주어 여름철 안전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할 뿐만 아니라 이안류를 사전에 대비할 수 있어 주변 상권의 경제적 피해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됨.

◆ 이안류 예측정보 서비스

- 예측 단계 : 안전, 주의, 경계, 위험 등 4단계
- 제공 해수욕장(3개소) : 부산 해운대, 제주 중문·색달, 양양 낙산
- 생산주기/예측기간 : 1일 1회 / 3시간 간격 3일
- 방 법 : 기상청 홈페이지(www.kma.go.kr)
 - 홈 > 바다날씨 > 바다예보 > 수치예측자료 > 해양지수정보 > 이안류 예측정보
 - 테마예보의 해수욕장 예보에 '이안류 예측정보' 링크

<이안류 예측 정보 예시>

해운대 해수욕장(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1동, 중1동)

2014년 07월 29일 발표

| 요소 | | 오늘(29일) | | | | 내일(30일) | | | | 모레(31일) | | | |
|-----|----|---------|----|----|----|---------|----|----|----|---------|----|----|----|
| | | 09 | 12 | 15 | 18 | 09 | 12 | 15 | 18 | 09 | 12 | 15 | 18 |
| 이안류 | 위험 | | | | | | | | | | | | |
| | 경계 | | | | | | | | | | | | |
| | 주의 | | | | | | | | | | | | |
| | 안전 | ■ | ■ | ■ | ■ | ■ | ■ | ■ | ■ | ■ | ■ | ■ | ■ |

중문·색달 해수욕장(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예래동)

2014년 07월 29일 발표

| 요소 | | 오늘(29일) | | | | 내일(30일) | | | | 모레(31일) | | | |
|-----|----|---------|----|----|----|---------|----|----|----|---------|----|----|----|
| | | 09 | 12 | 15 | 18 | 09 | 12 | 15 | 18 | 09 | 12 | 15 | 18 |
| 이안류 | 위험 | | | | | | | | | | | | |
| | 경계 | | | | | | | | | | | | |
| | 주의 | | | | | | | | | ■ | ■ | ■ | ■ |
| | 안전 | ■ | ■ | ■ | ■ | ■ | ■ | ■ |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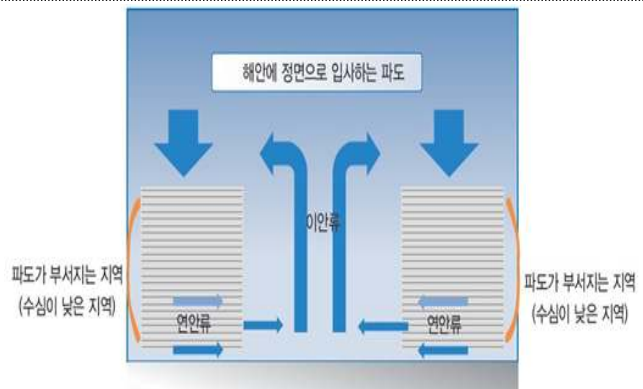
낙산 해수욕장(강원도 양양군 강현면 진전리)

2014년 07월 29일 발표

| 요소 | | 오늘(29일) | | | | 내일(30일) | | | | 모레(31일) | | | |
|-----|----|---------|----|----|----|---------|----|----|----|---------|----|----|----|
| | | 09 | 12 | 15 | 18 | 09 | 12 | 15 | 18 | 09 | 12 | 15 | 18 |
| 이안류 | 위험 | | | | | | | | | | | | |
| | 경계 | | | | | | | | | | | | |
| | 주의 | ■ | ■ | ■ | ■ | ■ | ■ | ■ | ■ | | | | |
| | 안전 | | | | | | | | | ■ | ■ | ■ | ■ |

※ 이안류 발생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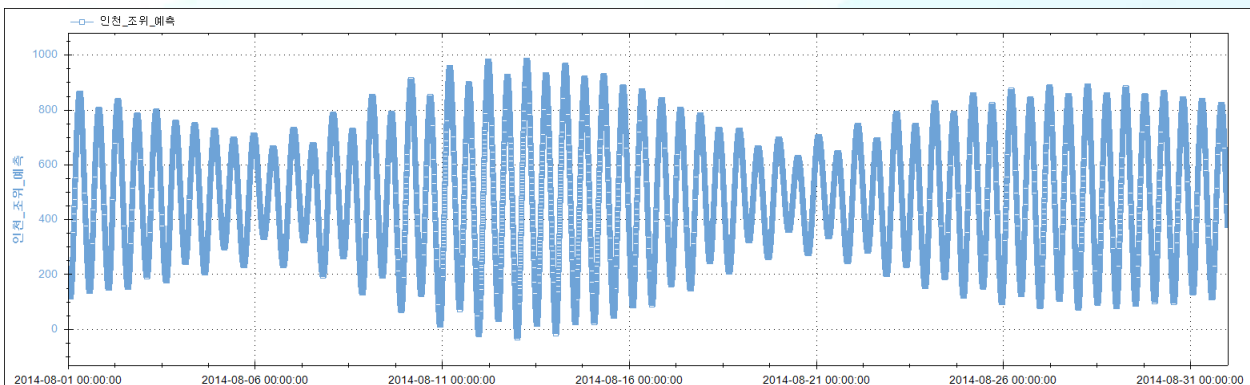
이안류는 기상, 지형 및 해상의 여러 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
 외해에서 강한 바람으로 인해 높은 파도가 형성되어 파가 해안에 거의 정면으로 밀려오고, 물결이 부서지는 쇠파대가 넓게 형성된 곳에서 이안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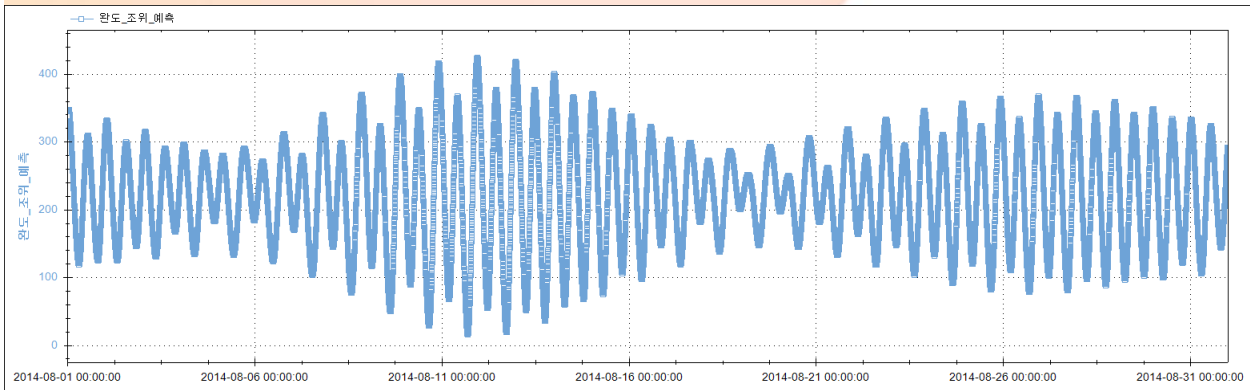
▶ 2014년 8월 조석 예보

8월 11일 망 이후에, 서해의 인천에서 8월 13일에 980 cm의 고극조위가 나타나며, 남해의 완도에서 8월 11일에 424 cm, 동해의 포항은 8월 11일에 51 cm의 고극조위가 나타나겠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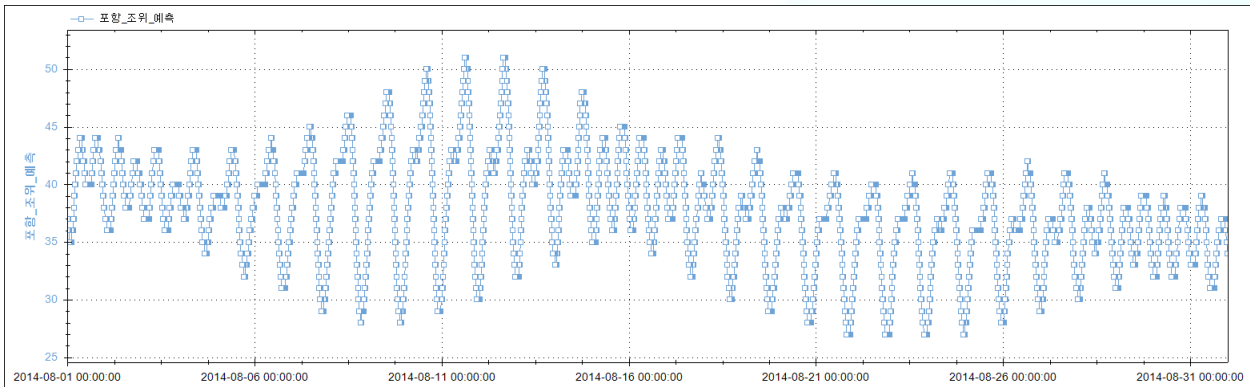
| 해역 | 관측소 | 대조기(망 8.11) | | 대조기(삭 8.25) | |
|----|-------|-------------|-------------|-------------|-------------|
| | | 고극조위(cm) | 발생시각 | 고극조위(cm) | 발생시각 |
| 서해 | 인 천 | 980 | 08.13 06:28 | 885 | 08.28 06:14 |
| | 안 흥 | 737 | 08.12 04:46 | 662 | 08.28 05:19 |
| | 군산외항 | 408 | 08.11 22:13 | 349 | 08.26 22:08 |
| | 목 포 | 526 | 08.12 03:13 | 455 | 08.27 03:16 |
| 남해 | 완 도 | 424 | 08.11 22:50 | 367 | 08.26 22:47 |
| | 마 산 | 215 | 08.11 21:41 | 189 | 08.26 21:25 |
| | 부 산 | 157 | 08.11 21:07 | 144 | 08.27 21:26 |
| | 제 주 | 317 | 08.11 23:27 | 275 | 08.26 23:27 |
| 동해 | 포 항 | 51 | 08.11 15:19 | 42 | 08.25 15:12 |
| | 울 릉 도 | 46 | 08.11 14:25 | 41 | 08.25 14:16 |
| | 속 초 | 55 | 08.11 14:53 | 50 | 08.25 14:42 |



<2014년 8월 인천 조석예보>



<2014년 8월 완도 조석예보>



<2014년 8월 포항 조석예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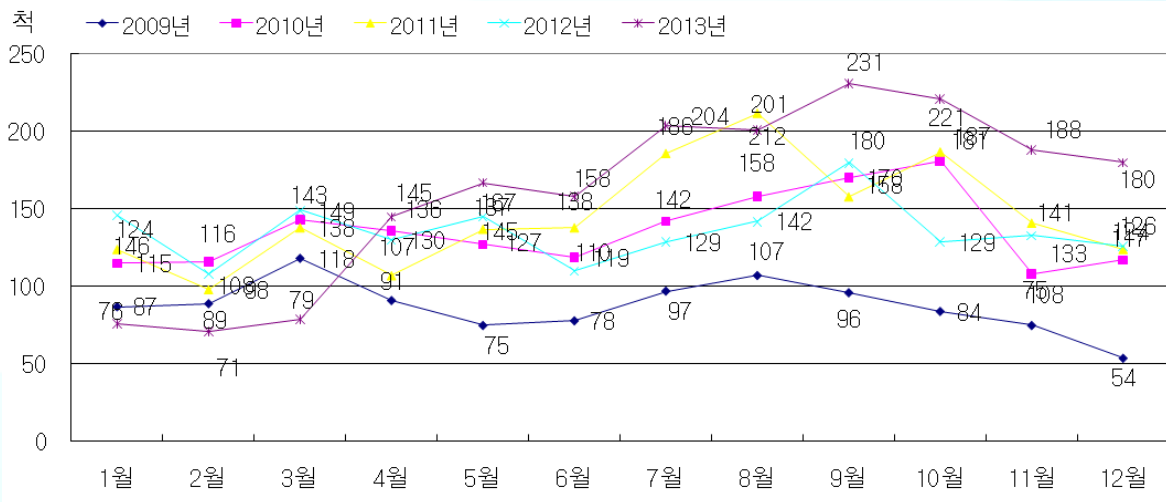
해난사고 현황

★ 최근 5년간(2009. 1. 1. ~ 2013. 12. 31.) 현황

■ 선박사고(선박의 충돌, 좌초, 화재, 침수, 전복 등으로 인한 피해)

- 총 7,982척(49,817명)의 선박사고 발생
- 구조현황 : 선박 7,708척(96.6%), 선원 49,330명(99.0%)
- 피해현황 : 재산피해[선박 273척(3.4%)], 인명피해[487명(1.0%) : 사망(285명), 실종(202명)]

| 구분 | 발생 | | 구조 | | 구조불능 | | 인명피해 | |
|-------|-------|--------|-------|--------|------|-----|------|-----|
| | 척 | 명 | 척 | 명 | 척 | 명 | 사망 | 실종 |
| 계 | 7,982 | 49,817 | 7,709 | 49,330 | 273 | 487 | 285 | 202 |
| 2013년 | 1,052 | 7,963 | 1,015 | 7,896 | 37 | 67 | 48 | 19 |
| 2012년 | 1,632 | 11,302 | 1,570 | 11,217 | 62 | 85 | 64 | 21 |
| 2011년 | 1,750 | 9,503 | 1,680 | 9,418 | 70 | 85 | 38 | 47 |
| 2010년 | 1,627 | 9,997 | 1,569 | 9,844 | 58 | 153 | 85 | 68 |
| 2009년 | 1,921 | 11,052 | 1,875 | 10,955 | 46 | 97 | 50 | 47 |



■ 해역별 최근 5년간 8월 중 사고발생 현황(제공 : 중앙해양안전심판원)

- ◆ 해역별 : 서해영해 > 남해영해 > 국내항만 등의 순으로 발생
- ◆ 서해영해 : 기관손상, 충돌, 좌초 등의 순으로 사고 발생
- ◆ 남해영해 : 충돌, 기관손상, 좌초 등의 순으로 사고 발생

8월 사고 발생 현황

- ◆ 최근 5년간 총 375건(474척) 발생 ⇒ 8월 중 평균적으로 75건 발생
 - 유형별로는 기관손상 111건(29.6%), 충돌 70건(18.7%), 좌초 32건(8.5%), 안전저해 29건(7.7%) 등의 순(총 375건)
 - 선종별로는 어선 350척(73.8%), 예부선 51척(10.8%), 화물선 35척(7.4%), 유조선 17척(3.6%) 등의 순(총 474척)
 - 인명피해는 충돌 83명(50.3%), 인명사상 23명(13.9%), 접촉 20명(12.1%), 좌초 18명(10.9%), 침몰 8명(4.8%) 등의 순(총 165명)



해양안전 정보

8월 해양사고 대비 주안점

- ◆ 태풍 내습기 시작으로 풍랑주의보 등 기상특보 발효시 사고 증가
 - 풍랑주의보 이상 발효된 기상 불량한 해상에서 해양사고 발생
 - 태풍 특보 등으로 인한 사고가 81척으로 연중 가장 많이 발생
- ◆ 하계휴가 시작으로 선박 이용객 증가에 따른 해양사고 급증
 - 피서기에 많은 국민이 이용하는 요트 및 모터보트, 낚시어선 등 레저선박의 사고 증가

▶ 해양사고 빈발 시기(822척, 연중 2번째 많음), 안전 항해 및 조업

- 해양사고 822척 중 어선에서 발생한 해양사고는 67.8%인 557척 발생
- 레저보트(요트)에서의 사고는 24척으로 연중 가장 많이 발생

▶ 통영, 태안, 목포 지역에서 해양사고 빈발

- 8월 중에는 통영해경서 관할해역에서 109척(가장 많음), 목포해경서 100척(2번째 많음), 태안해경서 85척(3번째 많음) 순으로 해양사고 빈발

▶ 기관고장, 충돌, 침수 등 해양사고 빈발

- 유형별로는 기관고장(262척), 침수(118척), 충돌(106척) 등의 사고 발생
- 정비 불량에 의한 기관고장 및 대형사고 발생 가능성이 짙은 충돌, 침수 등의 해양사고 다수 발생



▶ 태풍 내습기 기상정보 확인, 사전 피항 및 피해예방을 위해 양륙

- 기상 악화시 외력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많이 받는 소형 어선, 예인선은 기상정보를 확인하고 악천후 예상시 무리한 운항 자제
- 태풍피해 예방을 위해 사전 안전해역 피항, 소형어선은 안전하게 육상으로 이동 결박

▶ 장마철 대비, 화재예방을 위한 선내 전기설비 수시 점검 필요

- 장기간 장마로 선내 전기절연 상태가 불량하여 화재로 발전할 수 있으므로 특히 FRP 어선은 조업 출어 전 선내 절연상태 점검 확인 필요

▶ 본격적인 피서철을 대비하여 선체 및 기관 등 점검, 안전 운항

- 본격적인 피서철 시기로 많은 국민이 바다를 찾으므로 해양사고의 예방을 위해 사전 여객선의 선체 및 기관 등에 대한 안전점검 및 운항규칙 준수

▶ 해수욕장 인근에서 운항중인 수상오토바이 및 요트 등 사전 피항

- 바다를 처음으로 찾는 시민은 피항 방법에 대해 익숙하지 않으므로 해수욕장 인근 해역 향해 자제 및 수상 오토바이·요트 등에 대해 사전 피항

▶ 안전 경각심이 무감각해지는 시기이므로 충분한 휴식 필요

- 장마로 인한 호우와 잦은 안개, 고온다습으로 선원들의 집중력이 저하되어 안전에 무감각해지는 시기이므로 무리한 조업 및 향해 자제(충분한 휴식 필요)
- 해양사고 발생시 가장 신속하게 구조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해양경찰청, 지방해양경찰청 및 전국 해양경찰서에서 운용중인 “바다 사건·사고 긴급 전화 122”를 이용하여 신고하여 구조요청



수온 동향

★ 8월의 예상 수온

8월의 수온은 동해·서해가 1~2℃ 정도 높은 수온분포를 보이고, 남해는 평년과 비슷한 수온분포를 보이겠음.

- 동해 : 18~27℃ 분포
- 남해 : 22~26℃ 분포
- 서해 : 23~28℃ 분포

▶ 지난달 수온 분포

7월의 월평균 연안 수온은 20.2~26.2℃ 범위로 분포하였음. 동해연안은 21.3~21.5℃, 남해 연안은 20.2~22.5℃, 서해연안은 22.4~26.2℃의 분포를 보였음.

인공위성 자료로 분석된 한반도 주변 해역의 7월 표층 수온분포는 동해 근해역에서 25~26℃로 평년과 비슷한 수온분포를 보였으며, 남해·서해 근해역은 각각 20~25℃, 23~26℃로 평년에 비해 각각 3~4℃, 1~2℃ 범위의 낮은 수온 분포를 보임.

어장 분포

★ 8월의 어장 분포

8월에 들면 대형선망어업은 난류세력의 확장과 수온 상승으로 고등어, 전갱이, 갈치 등의 난류성 어종이 제주도 주변해역과 남해 전 해역에서 어장을 형성할 것으로 예상되며, 중순 이후에는 난류를 따라 서해로 북상하는 고등어와 살오징어의 자원량이 증가하여 서해남부해역에서도 어장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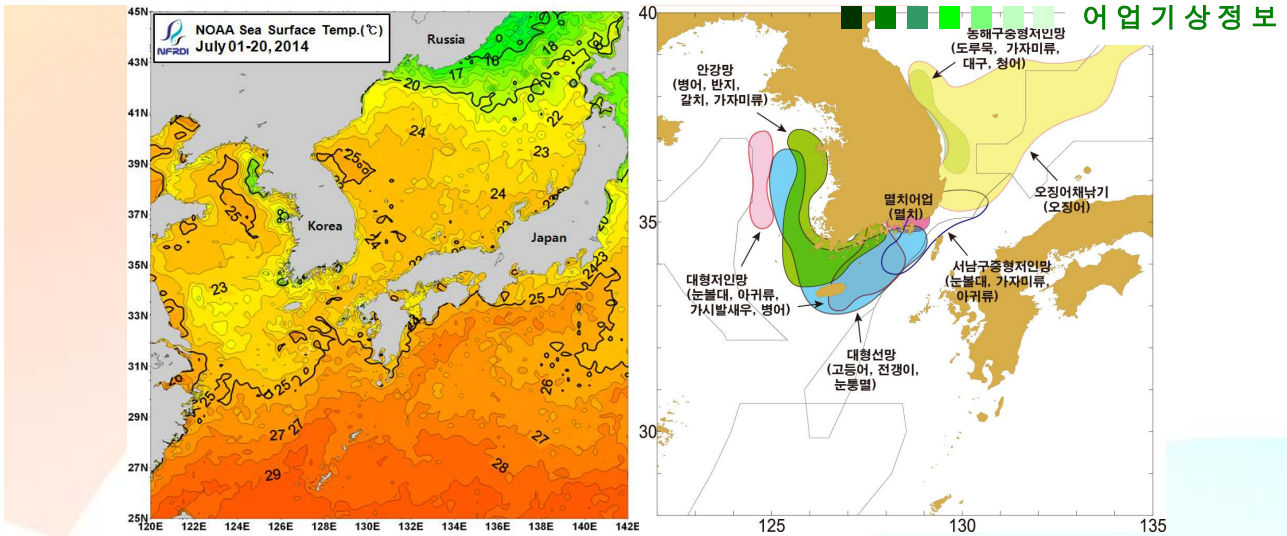


그림 3. 광역 수온 분포(위성) 및 어업별 예상어장도(8월)

| | |
|-------|---|
| 고 등 어 | 난류 세력의 확장과 수온 상승으로 제주도 주변해역에서 어군의 내유량이 점차 증가하겠으며, 후반기로 가면서 서해중부해역까지 어장이 확장될 전망이다. 전체적인 어황은 평년수준이거나 다소 부진할 것으로 전망 |
| 살오징어 | 살오징어는 동해의 수온이 평년보다 빠르게 상승함에 따라 어군의 북상회유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동해 전 해역에 걸쳐 어장이 형성되겠으며, 하반기에는 러시아 연안역까지 어군이 북상할 것으로 전망됨. 전체적인 어황은 평년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 |
| 멸 치 | 멸치는 권현망어업에 의해 남해동부 연안역을 중심으로 동해의 울산~주문진 주변해역과 서해의 군산 연안역에서 어장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됨. 전체적인 어황은 전년대비 난자치어의 밀도가 높아 평년비 순조로울 것으로 예상 |
| 갈 치 | 갈치는 서해남부와 제주도 주변해역에서 중심어장이 형성되겠으며, 남해 연안역에서도 일부 어장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됨. 여름철 성어기에 접어들면서 어획량이 서서히 증가하고 있어, 전체적인 어황은 평년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 |
| 참 조 기 | 참조기는 제주도 서부해역, 서해 남부해역과 남해 서부해역에서 중심어장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되나 어군의 내유량이 많지 않아 전체적인 어황은 전년수준이나 평년비 부진할 것으로 예상 |
| 기 타 | 명태는 7월 동해구외끝이중형저인망어업에 의해 20kg이 어획되었으나 자원량은 여전히 낮아 어황은 저조할 것으로 전망되며, 말쥐치, 갑오징어 등도 여전히 자원량이 회복되지 않고 있어 저조한 어황이 예상 |

▶ 지난 달

6월 중순부터 7월 중순까지의 주요 어종별 어황을 살펴보면 참다랑어, 전갱이는 평년비 순조로웠고, 멸치는 평년수준이었으나 갈치, 고등어, 참조기, 살오징어는 평년비 부진하였음. 참다랑어는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WCPFC)의 태평양 참다랑어 보존관리조치에 근거해 2014년 우리나라 연근해 해역에서의 치어 어획한도가 1,220톤으로 설정됨에 따라 어획이 자제되고 있음.

▶ 해파리

7월에는 약독성의 보름달물해파리가 동·서·남해 전 해역에 출현하였음. 강독성의 노무라입깃해파리는 제주도 일부해역과 서해에서 소량 출현하였음. 강독성의 커튼원양해파리는 경남과 강원도 일부해역에서, 맹독성의 작은부레관해파리와 약독성의 푸른우산관해파리 제주도 연안 각각 한 곳에서 출현하였음.

8월에는 보름달물해파리가 동·서·남해에서 7월과 비슷한 수준으로 출현할 것으로 전망되며, 노무라입깃해파리는 출현률이 급증함과 더불어 전남해역 등 남해에도 출현할 것으로 전망됨. 또한 제주 및 남해 전해역에서 맹독성 해파리 출현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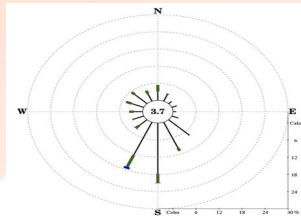
▶ 적조

7월은 무해성 적조가 여수 해역에서 발생하였고, 7월 24일 18시부터 전남 여수시 화정면 ~ 경남 거제시 일운면 해역에 대한 유독성 적조생물(코클로디니움) 출현 주의보를 발령하였음. 8월은 일사량 증가와 수온 상승 등 적조생물 성장에 적합한 환경이 조성되어 코클로디니움 적조의 밀도 증가와 국지적 적조 발생이 예상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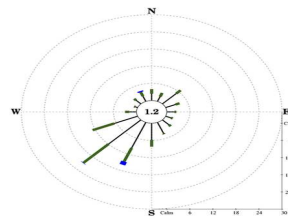
▶ 냉수대

7월 18일 13시를 기해 감포, 울기, 기장, 부산, 거제 연안에 냉수대 주의보가 발령되었고, 표층수온 분포 범위는 15~20℃로 나타남. 동해연안 냉수대는 8월에도 발생과 소멸을 반복할 것으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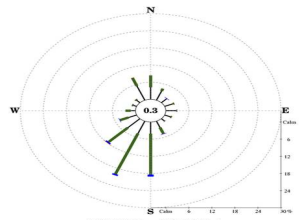
8월의 해상풍(해양기상부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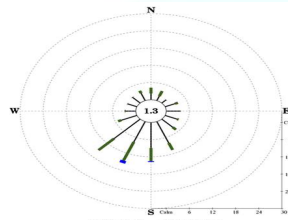
덕적도(서해중부면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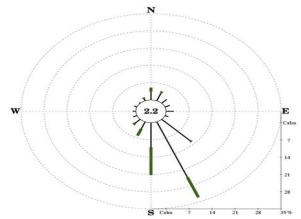
울릉도(동해중부면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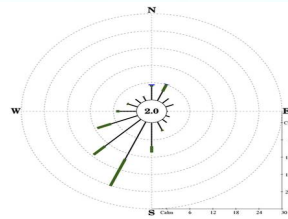
외연도(서해중부면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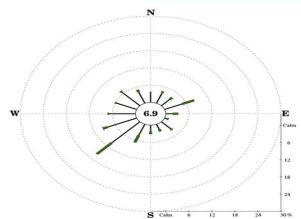
동해(동해중부면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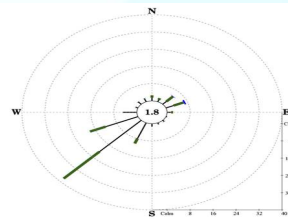
칠발도(서해남부면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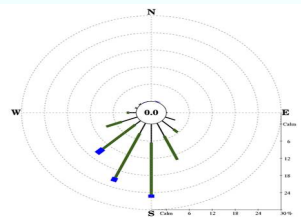
포항(동해남부면바다)



거문도(남해서부면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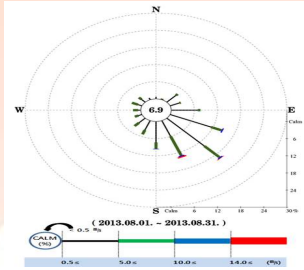
거제도(남해동부면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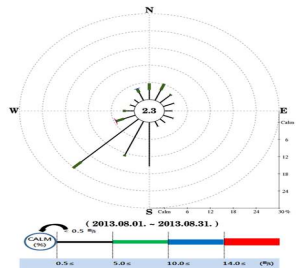
마라도(제주도면바다)

그림 4. 해양부이 관측 해상풍('13년 8월, 바람장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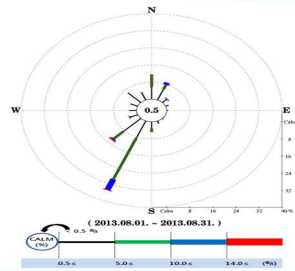
8월의 해상풍(등표기상관측장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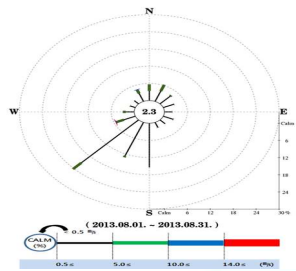
서수도(서해중부앞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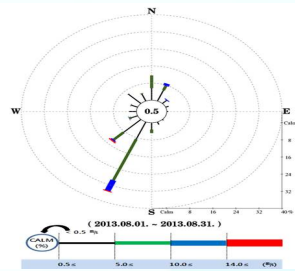
가대암(서해중부앞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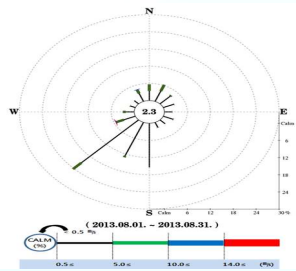
이덕서(동해남부앞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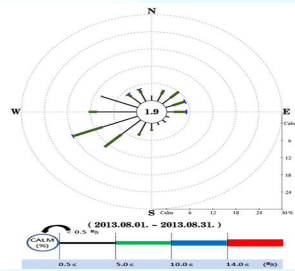
십이동파(서해남부앞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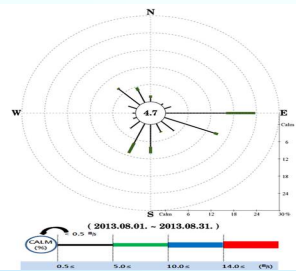
광안(남해동부앞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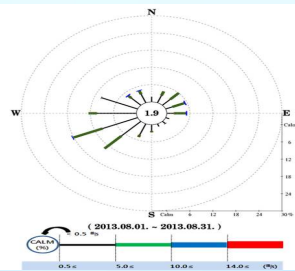
갈매여(서해남부앞바다)



간여암(남해서부앞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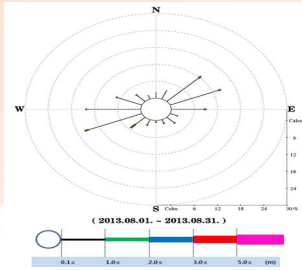
해수서(서해남부앞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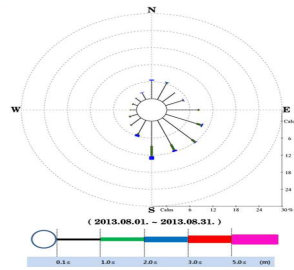
지귀도(제주도 앞바다)

그림 4. 등표기상관측장비 관측 해상풍('13년 8월, 바람장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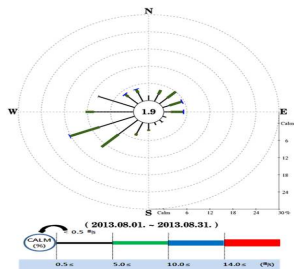
8월의 파향(해양기상부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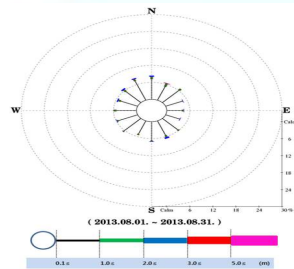
덕적도(서해중부면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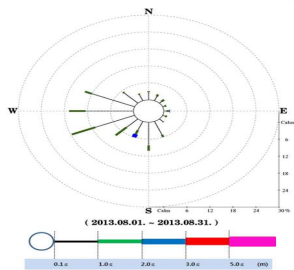
울릉도(동해중부면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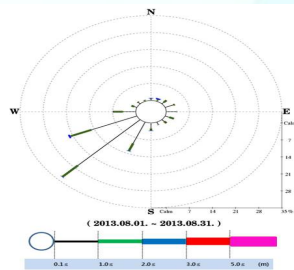
외연도(서해중부면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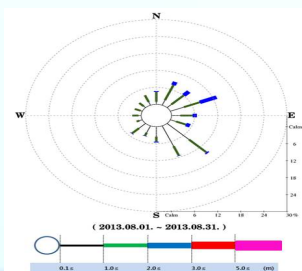
동해(동해중부면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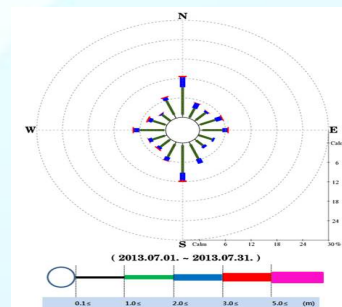
철발도(서해남부면바다)



거제도(남해동부면바다)



거문도(남해서부면바다)



마라도(제주도면바다)

※ 포항(동해남부면바다) 자료 수집률 80% 이하로 통계자료 미생산

그림 4. 해양부이 관측 파향('13년 8월, 파향장미)

【참고자료 2】

▶ 8월의 주요 해양사고일지

| 일 시 | 선 명 | 피 해 | 사 고 원 인 |
|--------------------|--|----------------------|--|
| '10.8.12. 22:50 | 군****호 (여수선적, 496톤, 유조선, 승선원 6명) | 인명피해 없음 (기름유출) | 통영 매물도 북동방 해상(저시정 협수로)에서 유조선이 트롤어선과 충돌, 유조선 선체 파공으로 인한 기름 해상 유출 |
| '10.8.14. 14:00 | 한*호 (통영선적, 10톤, 어선, 승선원 0명) | 인명피해 없음 (3백만원) | 여수시 간여함 인근 항에서 장기 정박 중인 어선이 침몰하면서 옆에 계류 중인 어선 2척 침수 피해 초래 |
| '11.8.30. 04:00 | 해***호 (부산선적, 462톤, 부선, 승선원 1명) | 인명피해 없음 (2천만원) | 통영시 해간도 해상에서 예인선의 부선이 화물 과적으로 저수심에 의해 좌초, 선체 균열 피해 발생 ※ 당시기상 : 북동풍, 7~11ms, 파고 1~2m, 시정 2마일 |
| '11.8.14. 07:34 | 봉*호 (부산선적, 0.93톤, 어선, 승선원 2명) | 사망 2 (선체침몰) | 부산 해운대 동백섬 앞 해상에서 좌초된 것을 누리마루 경비원이 순찰 중 발견, 승선원 2명 인명 피해 사망 |
| '12.8.28. 02:40 | 월*****4호 등 2척 (중국선적, 150톤, 어선, 승선원 17명) | 사망 15 (선체절단) | 서귀포시 화순항에서 중국어선 2척이 태풍 북상에 따른 피항 중 강한 바람과 파도에 밀리면서 인근 해안가 좌초, 선체 절단, 15명 사망 |
| '12.8.28. 13:15 | 카**호 | 인명피해 없음 (연료유출) | 태풍으로 인한 강풍과 너울에 밀려 전남 완도군 가사리 해수욕장 인근 해안가 암초에 좌초, 주변 양식장 손괴 및 연료유 해상 유출 |
| '13.8.17. 10:44 | 스타**호 | 사망 1 (선체전복) | 입파도 북동방 약 100m 해상에서 레저보트와 낚시 어선이 충돌 후 레저보트가 전복된 상황 |



좌초 군*호('10.8)



좌초 월*호('12.8)



좌초 카*호('12.8)